

남아공 기아폭동

자연발생적 반란 -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조직된 대중행동으로 전진하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 혁명적 사회주의동맹 (RCIT 나이지리아) 긴급성명, 2021년 7월 15일, www.thecommunists.net

1. 며칠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난 약탈을 동반한 “폭동”에 대해 운동진영에서 말들이 많다. 많은 외국인 기업들과 함께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 엘지도 남아공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서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단 맛을 즐기다가 이 “폭동”으로 사업장이 불타버렸다. 삼성전자도 “물류창고가 약탈 방화로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언론들도 “폭도들의 무자별 약탈로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 “폭동”은 애초 전임 대통령 제이콥 주마의 체포·투옥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되었다. 만델라의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후계자 중 한 명인 주마 전 대통령은 평생을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해 바쳐왔다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로부터의 뇌물수수를 비롯한 여러 부패, “국정농단” 혐의로 현 대통령 라마포사 (당시 부통령)에 의해 이미 실각된 상태. 진정한 반제국주의자·사회주의자들은 주마 지지 활동가들이 주도한 처음 시위를 지지하지 않았고, 따라서 참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위의 애초 성격이 바뀌었다. 더 이상 주마와 관계 없이 시위가 확대되었다. 시위는 곧 기아폭동이 되었고 진정한 반제국주의자·사회주의자는 궁핍과 굶주림으로 거리로 나선 가난한 대중들과 함께 해야 했다! 애초의 불씨는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번져버린 불길은 진보적으로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이미 2019년 가을에 시작된 공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반민주 보나파르트주의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 전 세계 자본가 정부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활용했다. 남아공은 록다운 봉쇄를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특히 지난 6월말부터 기아폭동이 있기 바로 나흘전인 7월 10일까지 초고강도의 록다운을 실시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 휴교, 그리고 사업장 근로 업무와 무관한 일체의 집합에 대해 금지령이 내렸다.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은 직장 출퇴근과 생필품 구매 이외에는 이용 불가로 되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 및 소비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과 기업들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았다.

3.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델타 변이 확산 이후 65,595명이 사망했다는 것으로 정부는 권위주의적 봉쇄령 조치를 정당화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주장할 수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남아공은 계엄령 식 록다운 정책이 어떻게 팬데믹 자체보다 더 큰 참사를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첫째, 사회주의자들은 이 록다운 조치가 진실로 팬데믹 퇴치를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남아공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에서 선두 국가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는다! 2019년에 약 58,000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결핵 백신은 이미 1921년에 개발되었으나 2019년 이전 몇 년간 남아공에서 결핵 감염률은 20% 증가했다. 과거에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질병에 대해 지금과 같은 대량 백신접종 프로그램이나 록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적은 없다. 분명히 록다운에는 보건 관련 고려 말고 다른 동기가 있다!

4. 더욱이 록다운 정책으로 인해 2020년 한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은 상위 20% 부자가 나라의 부 70%를 장악하고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공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기아 상태로 내몰린 빈곤 대중들이 시위로 촉발된 기회를 이용하여 마트와 슈퍼마켓을 습격하고, 식료품과 함께 각종 생활용품을 움켜쥐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수십 년 이래로 가장 큰 자본가 강도들이 나라의 자원을 수탈해서 모조리 틀어쥐고 있는 판에 대중들에게 약탈을 멈추라며 “폭도”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무분별한 편견인가!

5.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거리의 가난한 대중들을 편 들어야 한다. 시위와 “폭동”은 더 이상 주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117명이 진압 군경에 의해 죽고 2,200 여명이 체포당하는 기아 반란으로 번져버렸다. 이 반란은 정치 활동가들에 의해 잘 조직된 계획된 정치적 시위는 아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생존권 요구, 빈곤 대중의 절박한 생활상의 필요로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폭발이다. 2008-09년에 “대불황”이 시작됐을 때 터져 나온 자연발생적 기아폭동들을 상기하라. 이번에는 10년 전 “불황”보다도, 나아가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혹독하다. 신종 바이러스가 지배계급에게는 자본주의의 이 역사적인 위기를 은폐하고 자본가계급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황의 고통을 다 팬데믹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반가운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6. 오늘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반란은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참화에 맞선 투쟁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아파트헤이트의 요소와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투쟁이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이 정치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원초적인 투쟁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투쟁들 중 하나이며 사회주의자들에게 중대한 시험대다.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동맹 (나이지리아)과 RCIT는, 자본주의 록다운 정책에 대해 철두철미 반동적이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거듭 설명해왔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민중 분노의 폭발을 조직된 대중행동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가난한 대중들이 기아 반란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별 요구를 집단적 요구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서 “폭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아 반란을 조직된 민중봉기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7.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나이지리아 지부 혁명적 사회주의동맹은 남아공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록다운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노동자·피억압자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여 경찰과 군대의 공격에 맞서 가난한 대중들을 방어하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아 반란을 자본가들에게로, 대기업으로, 은행과 카지노로 초점을 돌리도록 도와야 한다.

8. 기아 폭동에 스며든 반동들에 의해 주도된 외국인 혐오 공격에 맞서 모든 이주자를 방어하자. 노동자계급이 모든 가난한 민중들과 연합하여 권력을 잡는 것으로만 오늘의 기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 마을, 작업장, 학교에서 민중총회를 구성하여 자연발생적인 기아폭동을 조직적으로 노동자·빈민에 의한 자본가계급 몰수·수탈 행동으로 끌어올리자. 영웅적인 마리카나 노동자 파업을 상기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ANC 자본가정부를 대체할,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끝장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단결/투쟁/승리!

